

# 사탄의 나라에 복음의 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엘리야와 엘리사 -복음으로 여는 열왕기상- 열왕기상 3:10-13, 골로새서 2:3

정운돈 목사님

- \* **왕상3:10-13**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 \* **골2:3** 그 인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져 사탄에게 속은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지내고 지혜를 구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지만 나라가 강해지자 인간적인 머리를 쓰다가 첩들이 가져온 우상까지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죽기 전에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말년에 우상숭배를 회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북왕조로 분열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비밀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겠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았다면 그 후에는 복음화시키는 사역에 도전해야 한다. 그것이 후대를 237치유를 할 수 있는 서밋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237치유서밋을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항상 똑같다. 언제까지 복음, 치유한다. 우리에게 정복하고 도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너무 많다. 치유만 받다가 현장을 치유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불가능하다. 절대불가능한 것이 절대가능하게 되는 곳이 교회다.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윈리스로 힘을 합쳐 절대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램프들도 여러분이 다 헌금해 주셔서 잘 다녀왔다. 절대불가능하고 없었을 일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가능하다. 다른 램프들도 앞으로 여러 237현장에 갈 것이다.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저는 어학연수 신청한 열 명을 다 보내고 싶었다.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하다. 처음 시작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다. 어떤 모임을 할 때 일찍 와서 ‘아무도 없네’라는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있다. 생각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다락방 하나가 성공하면 두 개가 되고

3천 제자가 된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번에 남태평양 인재들을 초청하겠다고 한다. 우리 램프들이 먼저 응답받는다. 남태평양 14개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호주와 뉴질랜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윈리스되면 절대불가능이 절대가능이 된다. 우리는 237치유서밋 어려운 현상이지만 응답을 받았다. 열왕기상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바알과 아세라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컨셉과 컨텐츠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교육시스템이다. 영적교육, 복음교육, 전문교육시스템이다. 그게 있어야 미래가 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업의 신,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었다. 우리는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성공,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영적인 스마트팜과 복음적인 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해야 하겠다. 지금은 100세, 120세 시대다. 에탄동신이 친환경적인 스마트팜이었다. 지금 땅까지 저주를 받아 다 잃었는데 복음 안에서 다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교회, 목회자중심으로 결론이 나와야 한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계속 광야의 고생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신다. 우리는 근본을 바꾸지 않고 환경만 본다.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오늘은 열왕기상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전성기와 타락과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남북으로 분열된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다. 인류 역사에서 왕조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서 중 가장 오래된 문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다. 사실 삼국사기도 천 년이 안 되었다. 이건 3천 년된 이야기다. 인류 역사가 3,500년이 안 되었다. 그 이전 역사는 거의 근거가 없다. 사실적인 조사를 하면 몇 만 년인지 알 수가 없다. 노아의 방주가 4,500년 됐다. 노아의 방주 8명이 4,500년 지나면 지금 70억 인구쯤 된다고 한다. 만약 4,500년 전에 몇 천 명이 있었으면 지금 몇 백억 명이었을 것이다. 열왕기상이 가장 오래된 왕조 실록이다. 다윗은 3천 년 전의 인물이다. 역사가들은 성경의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고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했지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돌조각을 보고 이제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한다. 우리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이 왕조에 또 다른 특성은 왕들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어리석고 악한 왕들과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복음의 빛'과 '복음의 망대'의 역할을 한 전도자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는 왕조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고, 우리는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사탄 나라의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메시지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들은 과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나라만 생각한다. 바알과 아세라,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하나님께는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지만 사탄은 죽이기를 원한다.

**1. 사탄에게 속은 왕국 사람들의 잘못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장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었다. 오늘 대표적으로 아도니아와 솔로몬과 아합, 세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이 사람들은 자기 현장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다.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현장, 가정, 직장을 지옥으로 만든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지옥이다. 조건과 환경이 풍요로워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감사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열매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과 문제와 좌절이 왔을 때 더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인생을 알고, 복음과 성경에 대해 깨닫기 때문이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걸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후대들은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멋지게 살아야 한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갈등하고 헤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헤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반드시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1) 첫째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가 멸망하

고 말했다. 열왕기상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접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녀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다 자기 의가 되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몰랐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가 죽게 되었다. 가장 큰 영적문제는 조급함이다. 기다리지 못함이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다.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목사님보다 앞서는 것이다. 잘난 착하고 자기 의에 빠져있는 건 참된 의가 아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생겼고, 능력이 있고, 착했다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리에 욕심을 내면 이러한 결과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용사들이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걸 그들은 알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는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강단을 붙잡는 사람은 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천국보다 더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 중요하다. 요셉처럼 말씀이 들려야 한다. 나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제자는 절대 잘 해줄 필요가 없다. 섭섭하고 빠지면 제자가 아니다. 현장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데, 그 그릇으로는 서밋이 될 수 없다. 말씀으로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후대들도 준비해야 한다. 세계의 빛의 경제를 끌어와야 한다. 우리 램넌트는 아도니아처럼 조급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응답이 크다. 지금 내 본업에 충실하라. 램넌트는 영어와 중국어를 다 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러면 큰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

(2)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왕이 된 솔로몬은 정략결혼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 하다가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타락해 가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부인이 천 명이였다. 다 정략결혼해서 우상을 가져온 여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나중엔 다 바꾼다.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도 천 명의 첩이 있는 것처럼 음란하다. 솔로몬이 지식으로 교만했던 것처럼 조금의 지식으로 교만해진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3) 세 번째로, 아합 왕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사서 수도로 만든 능력있는 사람이다.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왕까지 되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이다. 우리도 성공하고 변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처럼 사탄에게 속아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아도니아, 솔로몬,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강단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 2. 복음의 망대를 세운 엘리야와 엘리사이다.

(1)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별난 사람이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불신자가 보기에 유별나야 한다. 그 말을 안 들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라는 게 아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더 잘 안다. 유별나게 믿는다는 말은 이상하다는 게 아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봐야 한다.

(2) 두 번째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금토일시대에 여러분들의 기능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증

거를 보여주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 믿는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 바알 선지자들은 없지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가정, 직장, 불신자들, 친구들과 하는 싸움이다. 다 우상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다. 만나면 다 이런 사람들이다. 450명을 만나면 450명이 다 그런 사람이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살리는 사람이다.

(3) 세 번째로, 엘리야는 중직자 오바다에게 미션을 주었다. 그리고 중직자 오바다는 이유 있는 순종을 하였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8절을 보겠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앞도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다는 아합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오바다를 우연히 만나서는 오바다에게 아합 왕에게 당당히 가서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한 것이다. 전도자 엘리야는 중직자 오바다에게 생명을 걸어야 할 미션을 주었다. 오바다는 이 말씀을 받고 이유 있는 순종을 하였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멸할 수 있었다. 중직자들과 램넌트들의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은 현장의 우상과 흑암을 꺾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4) 네 번째로, 오바다는 최초로 악한 아합 왕시대에 왕궁에 있으면서 선지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한 중직자였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을 보겠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5)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전도자의 길을 결단하였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서 엘리야가 겺옷을 그의 위에 던진 것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 선지자’로 부른 것을 상징하고 있다. 12겨릿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다. 엘리사는 대농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다 때려 치고 신학교를 가라는 말이 아니다. 많은 돈을 다 버리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말이다. 전도자의 길이다.

(6)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최고의 기도망대로 표현하고 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로 응답받으실 줄 믿는다. 여러분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엘리야 한 명이 영적으로 깨달으니 영력이 크다. 절대불가능을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절대가능으로 만들었다.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헌당할 수 있다. 그 중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 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 ② 오늘 어디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③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 ④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 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 ⑥ 마케도냐 빌립보에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 ⑦ 로마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이 7가지 이정표를 굳게 붙잡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을 통해 왕들의 삶과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